

인권 자료실		
등록일		
	B15	2

#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 발표 기자회견

- 보도자료 -

1994.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 발표 기자회견

## - 보도자료 -

1. 백홍룡(가명 : 배인오)씨 진술서 사본 2종
2. 안기부 수사관 공작 비디오 테이프 녹취록
3. 백홍룡씨 여권사본
4. 독일방문 백홍룡씨 양심선언 조사 보고서
5. 성명서
6. 안기부 수사관 사진(별첨)
7. 백홍룡씨 독일 베를린 시의회 양심선언 사진(별첨)

1994. 11. 9.

1. 백홍룡(가명 : 배인오)씨 진술서 사본 2종

# 진 슬 서

1994년 11월 5일 베를린

백 흥용



성명 : 백 홍용 (가명: 백인오)

본적 : [Redacted]

주소 : [Redacted]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가족 : 3형제. (작은형) 백성용 (34세) (큰형) 백우용 (38세)

[Redacted]

1. 94년 2월 ~ 5월까지 내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프락치가 앞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월 ~ 8월 중순까지 국내 활동가들중에 안기부 프락치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 있하리란 안아 (조사) 보고 포섭하는 일을 했습니다. 8월 중순경 안기부 귀장 (김성훈) 으로부터 국내 일에 머리가 아플것 같으니 여행겸 독일 (베를린) 에 갔다 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 ~~9월 1일~~

출국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왔다가 8월 31일 출국 하루전날 크리스탈 다방에서 김리장 으로부터 "내일 출국할 준비를 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안기부 본사로 안내받아 시장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이 한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02-594-2751 전화 : 594-2751 (대), FAX : 594-2753



“ 그 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노출된 것은 우리들에  
 잘못이 크나 그리 엄격한 용제는 아니다. 지금 승권제는  
 잠잠하지 양의나를 너와 나와 관계는 동등적 관계다. 우리가  
 믿는 만큼 너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여행중 바람직한  
 자세 들었는데 네 언론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대응이 잘  
 보기는 좋았지만 만일 그쪽에서 네가 배 인도가  
 아닌가 의심을 받으면 종종 즉시 활동 중단하고, 네가  
 기고 싶은데를 여행만화와, 만일 그들(법령학리)에게 네가  
 노출되어 잡히면 우리나라 관계를 복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함된다. ~~너~~ 너를 노출시키는 날에는 그들에게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널 죽일 수 있으니 절대 노출 시키면 안된다.”  
 드등 라고 하는등 시장이 말했습시다. 이후 과장나  
 안기부 직원 문 등한나 이신님 ~~이후~~ 나 총무로 복직에서  
 생식을 하습시다.

김 다장이 저에게 지시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 앞으로 1년정도 국내에서는 공개 활동을 하지마라.

지금까지 정병원들이 노출되면 1.2년 감적하여  
 (포락회, 공작담당)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전화 : 594-2751(대), FAX : 594-2753



빛사에서 공부도(교육)하고, 해외 활동도 할수있다.

나는 내가 보강을 하기때문에 해외(독일)도 나갈수  
있게 되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여행한다 생각하고  
베를린(법학대학)에 공부기와 국내 연간의 사업이  
있지만 안된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하지않고 그중에서  
내가 할수있는 것들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내  
안타보기 못한다. 너의 원로 보니, 그러나 너만  
우리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끔 되다.

사업 출발하면 베를린 법학대학 다니며 여행가듯이  
만날수 없나 하며 ~~적부~~ 집안안락 부지기만 파악하는  
만약 국내 연간의 사업이 있으면 사업으로  
계획을 하자. 이 일을 먼저 하자. 내가 할수있는  
여행을 해는 중이다. 여행 끝났을 때 3일전  
에는 문하고. 사업으로 계획을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 공항으로 나가겠다. 여행 끝났으면  
너 공자로 우선한 발의약 1년간 공부(교육)만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금구빌딩 304호)

☎ 137-070 전화: 594-2751(대), FAX: 594-2753

하면 된다. 이번에 좋은 기차나 많은걸 보  
내주려 한다. 네가 이번에 여행을 하게 된것이  
모두 내가 뒷보로써 저를 맡아서이다. 그러나 너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은혜를 저버리면 인신도  
아니다. 그런사람들은 사형사 꼭 매달린다. "라노등  
만약습내. 이쪽 내인 ~~공항이~~ 비행기  
시간은 ~~이~~ 이렇게주었고. 농경서 여권은 네가  
정당당한 기록이 있으니 새 여권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다음날 김포 공항 (16:20경)에서  
새 여권과 비행기표를 여행비를 받아 공항직원을  
만 다닐을 물론 통해 (출국심사도 받지 않고) 18:30분반  
개새미 도시락 비행기로 프랑크 푸르트 ~~반~~ ~~경유~~ 경유하여  
베를린에 도착 하였습니다.  
베를린 도착후 내가 밤경항하는데 아무  
그쪽분들이 나로 인해 피해가 가렸은 아닌가?



또한 우리 정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안기부 직원들의 말하듯 어떤 보람 해기를 얻게 되어  
특정쪽에 무슨 사건을 기록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항상 안기부 직원들에 혐의가 이르면 한달~~이내~~안에  
무슨 사건이 생길) 바로 부정행위를 들리지  
않고 위법기방은 다니며 제 마음을 정리하러

(10월 19일날 찾아가게 된것입니다.

3 양심선언의 동기는 말씀드리면.

가난 심석씨의 김은주씨에게 모든 원미향씨의  
가족분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였습니다. 잊어버릴려  
해도 자주 김심석씨의 무주씨가 고문강화는 생각이  
나고 원미향씨의 혼인식때 황기 넘치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과 남편에 의한 마음아파  
하는 모습이 생각날때 즉각 자결으로 귀로왔습니다.

변 호 사 이 기 욱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37-070 전화 : 594-2751 (대), FAX : 594-2753

2. 높은 안기부에 비인구적인 변들은 꼭 있어야  
그러 이상 이러한 스펙트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상상으로 저의 양상을 모든 분들께 알리기 바랍니다

4. 특히 귀장 (김성훈)에게 나의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저의 국내 운동권 프락치 단장이 아님으로

\* 국내 운동권에서 보르 시종은 보르 공인  
해리 운동간직과 정보원들에 대한 보르의 맞은  
했습니다. 국내 운동권에게 주로 8 일반에  
운동권과 연결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저가 시도  
했다가 못했거다. 시도한 단체와 개인은  
받았드리면. 한총련, 민예총, 민가협, 유가협,  
사민련, 시노맹 관련 구속과 재수감. 영구,  
개인으로는 ~~남대문~~ 남대문 영산 회원들이고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137-070 전화: 594-2751 (대), FAX: 594-2753

2월 28일 기안취기, 신아취기 음악 활동가 김성민씨 등,  
 기동하는 시인들을 돌보아주는 "노동자시인단"이라 지칭 조직을 만들어 개인들은  
 가입 시키고 일반 조총련 등으로 연결 시키라는  
 기안과정에 지시해 따라 시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시해 보라는 지시도  
 이 경우로써, 강인취기, 기안취기,  
 김성민씨, (조성수씨보다 이 경우로써) <sup>경우</sup> 주위 시인들이  
~~주위~~ 조.와 이씨에 대해 어떻게 조공가를  
 하는가를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0.   
 함지애 대우씨는 기안취기 (93. 10. 28)  
 끝난 후 박성희씨가 함지 기자로 임명된다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9월 1일 쿨룩스 여행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 뮌헨 →

뮌헨 → 노르웨이 → 핀란드 → 헬싱키 →

부일스데르담 → 파리 → 스페인 → 스위스 →

빈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 뮌헨 →

로마 → 부일스데르담 → 빈 → 홍콩 →

쿠아니아 → 체코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10월 19일

출국시까지 있었던 장소에 <sup>대해</sup> 말씀드리면.

충무로에 대한강역관, 친구인 종교동에 집.

가리봉동의 선배집, 약시러 (리깅) 등입니다.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37-070 전화: 594-2751(대), FAX: 594-2753

김 과장님께서 대외적으로는 프락치로 복인된 후미  
앞에 되셨습니까. 프락치로 복인 되기 전에는  
간혹의 몰락한 사업입니다. (강리하여 (과로) 여기는 함)

지은 24쪽에 나오는 유동적인  
프락치의 이중 생활은 하의 유동적인 인사중  
본인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검찰하는  
정도입니다.

파주 남서리의 약은신체는 제가 가는 길을  
알고 있으나 (보령 시티버스터미널에서 광천행 버스로  
광천 하차후 택시로 광천 양어장 가자 하면 갈)  
부친·부친 안가는 제가 가는 로를 여인을  
숙이안하여 숙뎡기때문에 안지 못했습니다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137-070 전화 : 594-2751 (대), FAX : 594-2753

안기부 광고작성 이점을 알게 된 경우는 미분류되면  
안기부에 행동대원들이 김 나장을 비판할때  
사용했었고, 안기부 모친을 김 성훈이라 말  
함은것을 드러내지않아 하셨습니다.

국내에 어릴때 부터 친한 친구는 한명이 있었는데  
그런 후에 교통사고 사망하셨고 다른 친한 친구는  
방역 상회씨라 전승희씨가 있었는데,  
(내사청 회원) 335-1046

안기부 (불사) 비부르 듣어간것은 과장이 사용  
했던 방리 사정실, 방송실, 녹음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보면 보리서를 끝난후 불사로  
가서 인사 (사정에게)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고 관계를 맺고 싶으시면

공한자리 영희리/작은애서 처음 만나 친한  
선.후배로 지내며 늘 늘 영희를 함께  
황산했습니다. (연락처는 5/4-0008)

동료끼리 써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써 주위 동료분들도 한 사람씩 나에게 막 대하지  
않고 너무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좋은 बात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속이고  
대한것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들끼리 진실으로 대할수 있는 시간이 꼭  
생길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기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2년 가까이 앞에서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기부족 <sup>별마나</sup> 거짓말을 했었던지 인기부  
 족원 마저도. 인기부족이 잡히지 마라 인기부족이  
 잡히면 "세상이니 제발 재수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까지 하며. 어떤 인기부족직원은 인기부가  
 얘기하는 것 (별마나)은 많이 믿으면 30~40%만  
 믿으면 된다 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들은 것. 들은 것 종합해 보면 인기부가  
 하는 말은 10%로만 믿으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sup>사실로</sup>

앞으로 제는 이러한 인기부족의 비  
 인간적인 면들을 폭로하며, 그동안 제를 믿고  
 제에게 잘못해 주신 분들과 제를 믿고 신용해 준 분들.  
 그리고 야심적인 분들들에게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비인간적인 인기부족을 고발하며 생각합니다. 1994. 4. 5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037-070 전화: 594-2751(대), FAX: 594-2753



진 술 서

성명 백홍용(일명 배인오) [redacted]  
본적 [redacted]  
주소 [redacted]

본인은 1994. 11. 5. 베를린 윈베르크호텔 42호실에서 변호사 이기욱, 이덕우 입회하여 대한민국 국가안전 기획부 프락치활동과 양심선언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코자 합니다.

가족관계 외조부 백남선  
부 배인오(국민학교 3학년 때 사망)  
모 백정자(1981. 10. 경 사망)  
형 백우용  
백성용(안산거주 화동테크 근무)

학력 염창국민학교 4학년 중퇴  
1982. 경 강서신망애중학교 입학  
1986. 경 강서신망애고등학교 졸업  
1993. 경 노동자대학 5기 수료  
친구관계 가장 친한 친구로 전승희(31세) 등이 있음

취업경력 대성철공소, 동아일보 신문배달(등촌보급소), 전사개발(인쇄공 보조), 기타 선반공으로 영세철공소 에서 근무

운동을 하게된 구체적인 동기  
반월공단(전사개발)에서 파업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하던 친구 신호실의 소개로 박종철열사 추모사 업회에서 일하게 됨.

프락치로 활동하게 된 동기  
본인이 제작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상영문제로 미국방문 후 귀국하자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받음. 미주에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받으며 미주지역 범청학련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추궁받자 공포심을 느낌. 또한 부산 안가에서 3일간 수사관 2명이 교대로 철야조사를 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 을 하는 등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음. 그런데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안기부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출세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함. 그리고 회유가 제대로 되지 않자 큰 형이 도피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수배 증인인데 언제라도 잡을 수 있으나 협력한다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협박하여 고민하다 결국 굴복하여 협력키로함.

안기부 안가  
부천안가는 부천시내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며 고개를 숙이라고 하며 밖을 보지 못하게 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함.  
해운대 안가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함.  
낚시터 파주 광탄양어장이라고 부름, 광탄정류장에서 택시로 약 10분 정도 걸림.

구체적인 프락치 활동 내역  
2일 간격으로 안기부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운동권의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

변 호 사 이 기 욱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금구빌딩 304호)  
☎☎☎-☎☎☎ 전화 : 594-2751(대), FAX : 594-2753



등 보고.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 방문, 조총련 및 한통련 등 간부 접촉, 정보 수집, 보고

안기부직원들의 실명 여부는 모름, 단 그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임.

94.2. 말부터 출국하기 전인 같은 해 8. 말까지의 행적

과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프락치로 오해받을 소지는 있으나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한편 신임을 만난 대상자를 상대로 새로운 프락치를 물색하는 작업을 함. 7,8명을 대상으로 물색하였고 그 중 2명으로 2 명이 일할 의향이 있어 보고하였으나 포섭되었는지 여부는 모름

94.9.1. 출국 후의 행적

출국 후 범청학련에 전화하여 방문의사를 밝혔으나 겁도 나고 갈등이 생겨 미행이 있을지 모르므로 따돌리기 위하여 지하철을 바꾸어 타는 등으로 시내를 돌아다님. 양심선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래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로 밤열차를 타고 함부르크, 로마,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을 돌아다님. 10.19. 박성희씨 집으로 찾아가 신분을 밝히려 하였으나 말하지 못하고 베를린에서 안기부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있던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위협하므로 중요한 물건이라며 박성희씨에게 보관시킴. 그 다음 날 박성희씨의 집으로 전화하였는데 마침 생일이라며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보고 어떻게 된 일이나고 추궁하여 신분을 밝히고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고 함.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범청학련에 접촉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과장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음. 단 과장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고 과장 역시 크게 신뢰하고 있었음. 그리고 경험삼아 유럽여행을 하고 그 기회에 범청학련의 분위기를 알아오라는 지극히 단순한 지시였음. 또한 본인에 대한 기사 등으로 프락치로 오인받고 있으나 가명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

안기부 직원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프락치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차츰 갈등을 느끼게 됨. 그리고 점차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기부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려는 생각을 하고 93.7.경 크리스탈 다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몰래 얼굴을 촬영함. 그리고 직원에게는 비디오카메라가 고장나 수리하려고 가져왔다고 둘러댐. 이때까지는 명확히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음. 그런데 김은주씨 남매를 구속한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김은주씨 체포현장 근처로 불러내 감시하며 지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음. 또한 티브이 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에 공포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상태에 빠짐. 또한 인권운동 사랑방 등에서 뒷조사를 하고 프락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체가 탄로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과장 등은 시간만 흐르면 된다고 하며 지방으로 피신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케 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선배 약혼식을 빙자하여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그런데 비디오테이프라는 유력한 자료가 있음에도 겁이 나서 국내에서는 양심선언을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양심선언을 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중 갑자기 베를린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황급히 비디오테이프를 숨겨가지고 출국하였음. 출국 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중 이제 안기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양심수후원회원 등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녹색당의 후원으로 베를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함.

운동권 내부의 프락치 명단

명단을 보거나 이름을 직원들로부터 들은 적은 없음. 단 프락치활동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037-070 전화 : 594-2751(대), FAX : 594-2753



의하여 프락치로 짐작하고 있는 정도임.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프락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그리고 안기부의 공작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관련사건은 안기부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된  
것인데 그 이상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 그러나 본인이 조작에 관여하였던 경험과 이야기를 들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

이상 진술내용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상세히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며 자세한 것은  
본인 자필의 진술서와 본인의 동의하에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와 녹음테이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

1994. 11. 5.

진술인

백응용 

변 호 사 이 기 육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304호)

☎ 02-594-2751 전화 : 594-2751(대), FAX : 594-2753

## 2. 비디오 테이프 녹취록

### 테이프 1 녹취록

앞장면은 백홍룡(배인오)의 선배인 김용환 약혼식을 촬영한 것임

과장 : 다 찍었나?

배인오 : 아직 안 끝났는데...

과장 : 할 수 없어. 지금 .....(?)

배인오 : 끝나려면 한 30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 : 안돼. 지금 시간약속이 되 가 있어 안되고,

저, 그리고 너 지금, 뭐야 저, 그것 끝까지 다 찍어야 되나. 그런데 어딴노

배인오 : 끝나려면 한 한시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내 친구가 있는데 가르쳐주고 오려구요

과장 : 지금 또 가르쳐주러 가야되나? 호오..

배인오 : 하다가 나와서요.

과장 : 복잡하잖아, 이거.

배인오 : 네?

과장 : 복잡하잖아.

배인오 : 개가 좀 아니까...

과장 : 사람이 기다린단 말야, 지금. 시간약속 어기면 안돼.

배인오 : 제가 갔다가 10분안에 ...

과장 : 가만있어, 차가.... 찾아갈 수 있지?

배인오 : 네

과장 : 그안에 차타면 누가 보나?

배인오 : 안봐요.

과장 : 안보지?

배인오 : 네, 주차장 따로 있어요

<차안에서>



배인오 : 가는데 한 몇시간 걸리나요?

과장 : 두시간, 여기서 한시간 걸리지.

과장 : 김용환이가 약혼식하나?

배인오 : 네

잘 지내셨어요?

윤동한 : 응. 고생했지?

배인오 : 아니, 뭘요.

윤동한 : 지방 땡땡 돌아다닌단 얘긴 들었는데

과장 : 뭐 그런것 하면 평생이라도 하겠다. 얼마나 좋노. 잠자리 같은 것 불편해서 그  
그렇지 뭐

일체 전화한데 없지, 지? 하지마.

지금 고비다. 절대 전화하지 마라.

배인오 : 박상희 아직도 기독교회관에 있나요

과장 : 박상희 어디 있는게 모르겠어.

배인오 : 기독교회관에 계속 그때 있었는데

과장 : 비디오는 누구꺼냐?

배인오 : 이거요, 제가 그때 가져온거예요. 제꺼예요, 그 선배한테.

윤동한 : 좀 올라가야 될 걸

좋네, 여기.

배인오 : 쪽 가시면 돼요

과장 : 야, 이거. 전부 얼마야, 이거. 개인거야, 이기.

배인오 : 네, 조정하는 사람이래요. 사장이요.

과장 : 재벌이다, 재벌. 단순한 갈비집이 아니네.

윤동한 : 이 가든도 조정하는 사람꺼야.

배인오 : 네, 다 자기꺼래요.

배인오 :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윤동한 : 들어가자고

배인오 : 네, 거기 세우면.....

이후 약혼식 장면을 계속촬영한 것임

백홍룡씨가 베를린에서 선배 사생활에 관계된 것이므로 녹화된 것을 지웠음

## 테이프 2 녹취록

과장(김성훈, 가명: 김대치, 이하 과장): 니 그동안에 걸리게 되면 큰일 나!

배인오 : 제 주위에 운동하는 애들들은 저 선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쪽에서는 또  
내 본명을 다 알고 있고, 흥용이라고.

과장 : 니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 후에 거기 들어간다.

배인오 : 네.

과장 : 가서 책보고 그동안에 못한거 쉬라고 응?

배인오 : 네.

과장 : 잡혀봤면 나는 그만 작살나는 거야 잉? 낚시터에서 낚시도 하고, 일도 봐주고, 근  
데 일 할꺼 없어 낚시꾼도 없어. 거서 인자 책도 보고 낚시손님 오면 청소나 해주  
고 그러고 세월 보낸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볼 일 있으면 나와도 돼. 근데 후딱후  
딱 들어가야돼. 시내 다니다 그때 걸리면 누구도 책임 못져. 니가 알아서 해.

배인오 : 지금 경찰이 찾는 거예요?

과장 : 그래, 경찰도 찾고 다 찾는다. 온 사 .....

윤동환 : 너 신분증 없지.

배인오 : 네

윤동환 : 그럼 검문 당하면 어떡하나.

배인오 : 신원조회 해보고요.....

윤동환 : 신회조회 하면 대번 나오는데..

과장 : 수배되는건 아니니까. 그것도 자주 걸리면 반국가 ....(판독불능) 음모한다고 걸려  
든단 말이야. 봄조심하고 니가 목요일날 광주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목  
요일날은 오제. 그러면 금요일날 만날까.

금요일날 열시까지 다방에 나와. 크리스탈 나방에 나온나. 금요일날

배인오 : 네



윤동환 : 다음주 금요일날

과장 : 약속 겨우 니 있을 때 만들어 놔는데 오늘도 시간 어긋다 벌써. 약속을 해도 자꾸  
어기면 신용 때문에 그래. 알았어?

배인오 : 네

과장 : 가 가지고 인사만 착 하고, 다음주 금요일날 부터는 거기 들어간다 잉. 열시에 나  
와 금요일날 다방에, 연기하는거 그런거 하지말고, 그동안 니 볼거 다 봐나야 돼.  
금요일날 열시까지 크리스탈에 별일이 있어도 나와 잉?

배인오 : 네

윤동환 : 어디 광주야 전라도 광주야?

배인오 : 네

과장 : 조용히 있을때 까지 폭 쉬는 거야. 낚시도 하고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윤동환 : 낚시에 취미 붙이면 되는 거지.

과장 :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이눔아, 이럴때 찬스 좋은 거야. 내도로 이런거 하라  
면 일년 내도록 해. 정신도 쉬고. 들어가 편히 있어 잉?

배인오 : 네.

과장 : 뒤에 발이야, 낚시터 바로 뒷집에 매운탕 집이 있는데 식사값을 내가 가끔 가서 즐  
테니까. 한끼에 삼천원이다. 삼천원

배인오 : 아휴 해먹는게 낫지요.

과장 : 아니야 식사 좋아. 거기 아줌마가 개인집처럼 차려 줘. 근데 니가 하루 두끼 정도  
는 먹고 한끼는 라면을 먹든지. 그렇게 알아서 때우라고.

배인오 : 네

과장 : 니가 알아서 하라고.

윤동환 : 간단한 식사도구 있잖아요.

과장 : 응, 있어. 들어갈때 니는 아뭏든 세면도구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나머지 전기 장판  
하고 이불 같은 거 거기 다있어. 전기장판은 금요일날 내가 ..... 밥은 거기서 다  
먹으니까.

배인오 : 관리인은 있나요?



과장 : 응 관리인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 줄라고 하는 거야. 낚시터 사장도. 너는 이자 니 혼자 거기 가 있으면 관리인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친척동생이라고 그러고 거기 사장도 잘 아는 걸로 하고,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관리인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하면 안되니까. 미리 소개시켜 줄라 그러는 거야. 봄이 아파서 쉬러 왔다고 해야지, 학교 다니다가. 다른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배인오 : 근데 내가 거기서 의무적으로 일해 주는 건 더 없구요.

과장 : 응 없어, 니가 거기서 가끔 청소도 해주고, 매점도 있으니까 매점도 봐주고, 아침에 운동삼아. 절대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다.

과장 : 니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편하게 있으란 말이야.

배인오 : 제가 뭐 정기적으로 해주는 일은 없구요

과장 : 없어,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과장 : 낚시꾼이 없어. 혹시 일요일날, 토요일날 낚시꾼이 오잖아,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지러 놓고 가잖아, 그럼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적당히 모자같은 것 갖다 달라면 갖다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여름 같은면 굉장히 바쁘지. 지금 낚시철이 아니라서 손님들이 거의 없어. 니 편히 책보고 쉬면 돼.

안기 운전수 : 시간은 많이 남을 거야

과장 : 심심하면 책도 보고 낚시도 가끔 하고 그러면 돼.

윤: 비데오 잘 나와. 선명하게?

과장 : 그러다가 말이야, 만에 하나 그럴일이 없겠지만, 주위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왔단 말이야. 밤중에 그러거든 상담소로 해. 전화번호 알지. 273-1113번. 전화로 연락해서 거기 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찾아. 상담소 근무자한테 내한테 빨리 연락해 달라고, 그리고 낮에는 그런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하고, 그러면 되지?

배인오 : 그 아이 박상희 때문에

과장 : 고, 고년 찢어 죽여야 돼. 나중에

배인오 : 말지에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과장 : 내가 언제 한번 그년 찢어 죽일 거야.

배인오 : 말지에도 그럼 제 이름 나와요?

과장 : 그럼 안나오겠나? 박상희가 온갖 짓 다하고 다 해왔다. 그년이 보통 가는 년이 아니야.

배인오 : 말지에도 정신병 이야기 한거 나오나요?

과장 : 모르겠는데 그건. 거기 신경 쓰지마. 나오면 어때. 나는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란 말이야. 그냥 죽은듯이 있어. 신경쓸 것 하나도 없어. 그건 나중에 저절로 다 해결 되는 거야.

배인오 : 박상희 개. 뭐가 불만이 있어서 나보고 정신병 환자라고 까지 그러는 거야.

과장 : 그러게 말이야, 미쳤지 미쳤어. 난 그년이 정신병 환자 같애. 미친 년이야. 윤미향이 한테 고 왜 시켰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배인오 : 염규홍(인권하루소식 편집인-녹취자 주)이 하고 자주 만났대요. 사랑방에 있는 애.

과장 : 응 자주 만났대.

배인오 : 광철(남누리영상창작단회원)이 말로는 개하고 계속 몇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더라 구요.

과장 : 그래서 일체 많이 작용하잖아. 신경을 야에 가만히 놔두뿔면 지들이 더이상 나올게 없어. 지쳐. 나 자빠지게 돼 있어.

그러다가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끝이야.

배인오 : 광철이는 아직까지 박상희 말을 믿지 않는 대요. 광철이는 만나면 안돼요?

과장 : 안돼, 일체 만나지 마. 지금 니네가 꼬여 있지 않는가. 어느 놈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른다 지금.

일체 만나면 안돼! 하여튼 교도소 가는 걸로 하고, 몸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걸로 하고 편히 쉬어, 책이나 보고 그렇게 보내면 좋지, 뭐.

배인오 : 주민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장 :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 말이야. 지금.

배인오 : 동사무소에서 하면 어떻게 .....



과장 : 동사무소에서 대번 연락이 되면 간단 말이야. 경찰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놨단 말이야. 돼면 내가라도 해주지. 가급적이면 니가 몸조심 하는 거야.

배인오 : 등본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과장 : 등본. 등본 본인이 안가면 안돼나?

배인오 : 돼요.

윤동환 : 우리가 가서 띠어도 되지.

과장 : 등본은 우리가 띠어 줄께, 우리가 가서 띠 줄께.

배인오 : 등본하고, 초본하고요.

과장 : 그래 띠 줄께.

과장 : 주소가 어떻게 돼지.-

배인오 : [redacted]이요.

과장 : [redacted]에 몇?

배인오 : [redacted]호요.

과장 : 우리가 배인오 니놈 잡으러 다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너 잡는 걸로 하고 우리가 띠어 줄께, 동사무소 가서. 그래야 눈치 안채지. 우리가 니 잡으러 다니는 걸로 하고.

배인오 : 근데 말소돼면 띠어 주나요. 제가 훈련을 안나가서요.

윤동환 : 예비군, 민방위

배인오 : 민방위요.

과장 : 이 사건 나기 전에는 나갔지, 말소돼면 나중에 살리면 되지 뭐.

윤동환 : 재판 끝나면 돼. 지금 재판 중이니까.

배인오 : 근데 그놈이 이신부라는 놈이요. 아마 김삼석이 친구죠.

과장 : 이상올이야. 이상을

배인오 : 그놈이 저번에 저하고 전화동화 했었거든요.....

아주 아주.....

과장 : 니가 아주 안나타나고 없어서 부러야 돼. 니가 전화연락하는 바람이 일이 더 꼬여져 버렸어.



배인오 : 근까, 박상희 하고 개하고 딱 맞아 가지고, 시나리오를 딱 짜 놔드라고요. 기자회견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 : 맞아. 박상희 그년 언젠가는 한번 걸려들어야 돼.

운전수 : 도망다니요 개도?

과장 : 아니 도망다닐 필요 없지.

배 : 아니 개 나한테 정신병이라고 한 애. 개도 정신병.....

과장 : 그년이 미쳤지 니가 미쳤냐?

배 :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 잡아왔자... 뭐.....

과장 : 박상희는 장래가 없나 뭐, 얼마든지 잡아 놀래면 잡아놓지 뭐.

운전수 : 근데 왜 안잡아 냐요?

과장 : 좀 더 두고 보는 거야, 놔뒀다 이제 좀 있다 잡아 넣어야지.

배인오 : 주위에 있는 애들, 정리 한다는 거.....개네들 어떻게

과장 : 그거 좀 기다려 봐.

배인오 : 조용히 있나요?

과장 : 아직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절대 어디 전화연락하지 말고 낙시터에 앉아서 세월만 보내란 말이야. 니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란 이야.

.....  
배인오 : 재판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과장 : 빨리 끝날거야.

윤동환 : 지금 1심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 : 빨리 빨리 끝내라 그랬어. 1심만 끝나면 돼는 거야. 2심 없어.

배인오 : 12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과장 : 응

과장 : 니가 지금 가는데가 경기도 파주다 잉.

배 : 끝나고 나면 이상욱이나 인권위 쪽에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요.

과장 : 그럼, 갚아야지.

배인오 : 박상희 하고, 그쪽의 그놈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번에 그냥 제가 그냥 못 넘기겠어요. 박상희하고, 이상윤하고 주변에 같이 한 애들 제 복숨이 쏘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과장 : 그놈들은 니가 안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가만히 놔둬라.

배인오 : 그렇게 안하면 제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과장 : 니가 정신병자 돼나,

배인오 : 아니, 그렇기도 하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빨리 하지 못하잖아요.

과장 :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돼.

과장 : 시내에서 영미리 가는 버스가 어디에 있나.

.....

배인오 : 근데 아이 클 났네요.

과장 :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이 있는게 신상에도 좋고

.....

배인오 : 취직하면 안되나요.

윤동환 : 지금은 못 다니지.

.....

배인오 : 언론에 의하면 전쟁 날 위험이 있다는 데요.

과장 :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날 수가 없어.

배인오 : 미국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있나요.

윤인오 : 핵시설 북한 핵시설. 하겠어, 겁주려는 표현이지.

배인오 : 그렇겠죠. 전쟁 나면 북한 놈들 L.A.하고, 뉴욕 쪽으로 쳐들어 가겠다는데.

윤동환 : 그랬어, 어떻게 쳐들어가?

헤헤, 백악관으로 가나 그럼?

.....

배인오 : 이상윤이 그 사람이 반핵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신부라고 속였지요.



윤동환 : 니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뭐.

얼굴은 못봤어?

배인오 : 전화통화만 하고.

박상희한테 삐삐를 쳤는데요, 기독교 회관에 같이 있더라구요. 박상희가 전화했는데 바꿔주더라구요. 잠깐 기다리라고, 누구냐니까 얘기를 안해요. 이름을 댈수 없대요. 자기가.

윤동환 : 언젠데 그때가?

배인오 : 그때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전이죠.

배인오 : 자기네들이 기자회견을 할러다가, 연기했대요. 제가 박상희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했다는 소리를 듣고 연기 했대요. 나 만나고

윤동환 : 하루 연기했어. 하루

배인오 : 나 만나고 내가 연대에서 약속 했거든요. 박상희하고, 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 하기 전날 전화했었대요. 이상율이 하고, 내일 기자회견 하니까 한 다음에 자기한테 뭐나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더라구요. 기자회견 할 내용도 같이 얘기 하자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나 만나기 전에 하지 말라고. 내가 당사자니까.

윤동환 : 그러니까?

배인오 : 자기네들은 다 약속 했으니까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윤동환 : 박상희하고 통화 했었어?

배인오 : 예.

윤동환 : 기자회견 하기 전에?

배인오 . 박상희가 그때는 얘기 안했어. 기자회견 한다고. 고문 받으거에 대해서 한다. 고문..... 내 얘기 할 꺼냐구 고문 성문에 대해서 얘기 한다구. 기자회견 한 다음날 박상희하고 또 통화 했었어.

윤동환 : 박상희 하고?

개 신문도 봤지?

배인오 : 다음날 저녁에 통화 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뭐, 외신 기자도 오고, 말지에도 앞



으로 나갈꺼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뭐 니 양심껏 하라구. 그랬지요.

윤동환 : 박상희가 돌아선 것(배인오씨 주변에서-녹취자주) 같애. 박상희가 그것 때문에 니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애.

윤동환 : 박상희 단속을 좀 했어야 했는데

배인오 : 그때 개가 만나자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윤동환 : 그때 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박상희가 개들과 안뭍었으면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을 방향성도 컸어.

배인오 : 어떻게요?

윤동환 : 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들끼리 추측만 하고 끝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안됐을 꺼라구.

.....

.....

과장 : 자, 배인오 니가 여기 있을 데다. 자 나와라. 나와 일투 .....